



## What's new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0 호 | 2019.10.31

### 딜로이트 안진-팔로알토 네트워크 클라우드 조인트 세미나 개최

사이버 보안 최신 동향·클라우드 환경상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 방안과 인사이트 제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빌딩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팔로알토 네트워크 클라우드 조인트 세미나(Cloud Joint Seminar)'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4 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변화와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4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 4 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종전과 다른 클라우드 환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 거버넌스 및 보안규정 준수를 비롯한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보안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양 사는 기업의 성장 전략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축이 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이버 보안 동향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재웅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자문본부 이사는 'The future of cyber,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사례' 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레인 리우(Elaine Liew)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플랫폼 프리즈마(Prisma)의 아태지역 세일즈 담당 부사장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과적인 보안 및 규정 준수 (Compliance)관리에 최적화된 프리즈마 클라우드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 딜로이트 안진, '해외파견 임직원 인사 및 세무관리' 세미나 성료

해외 임직원 파견 시 효과적인 인사관리법·글로벌 세무 이슈 등 다양한 대응방안 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빌딩에서 '해외파견 임직원 인사 및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로 해외 임직원 파견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인사관리 및 세무 이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 기획됐습니다.

권지원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딜로이트 US Global Employer Services 에서 25 년간 해외파견관련 인사, 정책,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박진호 디렉터가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박 디렉터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장기간 축적해온 해외 파견 임직원 관리 노하우를 설명하고,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트렌드를 상세히 소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딜로이트 안진 서민수 파트너가 해외주재원을 위한 글로벌 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왕성숙 이사와 권혁기 이사는 해외 출장자들을 위한 세무관리법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한상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는 해외주재원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효과적인 인사관리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생명과학포럼' 개최

제약·바이오 업계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전망과 트렌드, 리스크 대응방안 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15 일과 17 일 양일에 걸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딜로이트 생명과학포럼 (Deloitte Life Sciences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규제 리스크와 세무 및 관세 이슈가 늘어나고,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지속성장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 기획됐습니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 생명과학팀 리더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향후 전망과 트렌드에 대해 연 6%대의 글로벌 제약산업 성장 대비 감소하는 연구개발비의 ROI, 약가 압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념해야 하는 거시적 관점의 시장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딜로이트 미국 매트 데이빗(Matt



David) 생명과학 M&A 자문서비스 리더는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사례와 라이선싱 아웃, 위탁개발생산 동향을 실질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박종우 파트너와 유정곤 파트너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된 세무·관세 이슈 최근 동향을, 황지만 리더가 국내 규제 리스크의 사례와 사전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고 김경훈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는 R&D 포트폴리오 관리와 임상 예측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딜로이트, HR 솔루션 컨설팅 최강자 인수로 아·태 인적자본관리시장서 입지 굳힌다

Presence of IT 직원 600 여 명 호주·일본·싱가포르·한국 등 딜로이트로 흡수

인적자본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 이하 HCM) 비즈니스 시장의 선두주자인 Presence of IT 의 설립자 및 경영진, 직원들이 딜로이트 컨설팅의 HR 컨설팅 부문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HR 솔루션(인력·보상제도 등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컨설팅 회사인 Presence of IT 는 딜로이트와 함께 HCM 시장의 리더로 알려져 있는 바, 두 파워하우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합병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 시장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인적자본 및 HR 혁신을 이끌며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세계 6 만 여명의 프로페셔널을 보유한 딜로이트 컨설팅은 HR 기능, 인력 및 조직의 인적자본 혁신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8 천 여 명의 전문가가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인사 및 재무관리 애플리케이션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인 워크데이(Workday)의 구현을 자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배정희 딜로이트 컨설팅 최고전략담당임원(CSO; Chief Strategy officer)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HR 솔루션 컨설팅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기반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리딩 컨설팅 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딜로이트 컨설팅,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초호황 대비전략·전력 강화 완료**

**ERP 흥창희 전무·클라우드 김우성 상무 신규 영입…IT 산업 컨설팅 서비스 강화에 본격 가속도**

**김기동·배정희 2 인 부사장 체제…국내 유일 종합 컨설팅사로의 입지 다지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종합 컨설팅사로서의 브랜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파트너) 영입 및 리더십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시장 내 리딩 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딜로이트 컨설팅의 강력한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딜로이트 컨설팅 테크놀러지의 외부인사 영입은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수퍼사이클’ 선점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4 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컨설팅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할 이번 영입인사의 첫 주인공은 흥창희 전무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Business Transformation)부문에 합류한 흥 전무는 SAP 코리아와 SAP 아시아태평양에서 컨설팅 세일즈를 이끌었던 여성 리더이자 신사업/솔루션 발굴 및 육성 전문가로, 국내 최초 공공기업의 외산 차세대 클라우드 도입 및 국내 대기업의 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플랫폼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IT 전략 및 미래기술혁신 부문에 합류한 김우성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끌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전문가인 김 상무는 클라우드 초기 기술인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Korea Azure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리딩, IBM GBS 컨설팅 사업부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 수립, Cloud Native 설계 컨설팅 및 SI 사업부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딜로이트 컨설팅은 파격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함께 사상 최초로 김기동, 배정희 2 인 부사장 체제를 갖추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